日人 팔아넘긴 부처님, 있을 곳 진정 어딘가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⑥ 하남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에 현존하는 최대(最大) 철불은 무엇일까. 바로 하남 하사창동 출토 철조여래좌상(이하 하사창동 철불)으로 높이가 2.81m, 무게는 무려 6.2t에 달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하사창동 철불은 대좌의 높이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약 4m가 넘는 위용을 자랑한다. 공간 자체를 압도하는 철불의 위용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심을 갖게 한다.

천왕사와 하사창동 철불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하사창동 철불은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이유로 조성 · 봉안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경기 하남시 하사창동(옛 경기 광주)의 절터에서 출토됐으며, 인근 발굴조사를 통해 목탑의 심초석과 건물지, 기단들이 확인됐다. 또한 목탑지 주변에서 '천왕(天王)', '왕사(王寺)' 명의 기와편이 출토돼 해당 지역이 '천왕사지'임을 알 수 있게 됐다.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하남 천왕사는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 창건된 사찰이며, 고려 왕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실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에 따르면 태조 왕건은 원종대사 찬유를 천왕사에 주석시켜 하남 · 광주 지역에서 불법을 펴도록 했다.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철불은 주로 경기 광주, 강원도 원주, 충남 서산, 충북 충주 등 남한강 유역과 중부지방에서 나타난다. 이는 고려 태조의 불교정책과 신앙의 시대적 추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보경 동국대 박물관 전임연구원은 '하남 하사창동 철불좌상의 함의와 기념비성'에서 하남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불상의 조성불사와 연결시켰다. 권 전임연구원은 "하남은 고려 건국 세력의 한 축인 한강 하류 근기지역, 충청도 북부지역, 나주 지역으로 묶이는 서남 해안 세력과 관련 있는 지역"이라며 "고려 통일 이후 전쟁 무기의 평화적인 회수와 활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태조 왕건의 발원으로 하사창동 철불좌상이 조성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인 매도해 박물관 소장품으로

고려 태조의 발원으로 조성됐을 기념비적 철불과 이를 봉안한 천왕사가 어떻게 폐사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사창동 철불이 다시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다.

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에 대한 기록은 다이쇼 5년(1916) 발간 〈고적조사보고〉와 다이쇼 6년(1917) 발간 〈고적조사보고〉에서 간단하게 나타난다. 그나마 1917년 발간된 〈고적조사보고〉가 상세한 편인데, 정리한 내용은 이와 같다.

"서부면 하사창리 객산 서쪽 기슭, 논 가운데 낮은 토단이 있다. 동서 직경 약 27척 5촌, 남북 직경 약 26척 5촌이다. 이곳에 철불이 동서에 나란히 남면하고 있다. 서쪽 철불이 크고 동쪽의 철불은 작은데, 7~8년 전 이왕가박물관으로 운반됐고, 높이 2칸 정도 기와로 이루어진 작은 집이 남아있었으나, 그마저도 그 후 자연히 흐드러졌다고 한다. 지금 이 토단은 무덤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 덮개는 여러 사람들이 믿던 불상이 존재한 유적이었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높이 2.8m, 현존하는 가장 큰 철불
압도하는 위용에 경외감이 '저절로'
하남 천왕사지 봉안됐을 거라 추정

타카다 큐고, 1911년 850엔에 판매해
철불, 이왕가박물관行…현 國博 소장
하남시 · 사암련 2020년부터 환수 염원
천왕사지 학술발굴 등 연구 선행돼야

이를 통해서 하사창동에 절터가 있었고, 당시에는 동서로 철불이 나란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큰 서쪽 철불은 현재 하사창동 철불을 의미하며, 작은 동쪽 철불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윤 시기를 7~8년 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사창동 철불이 이운된 것은 1911년 이후다. 당시 불상의 소유자였던 타카다 큐고(高田久吾)가 1911년 2월 20일 850엔의 대금을 받고 불상을 이왕가박물관에 팔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구한말 기준 850엔은 현재 170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이왕가박물관은 조선 5대 궁궐 가운데 하나인 창경궁 일곽에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설립된 한국 최초의 박물관이다. 1912년에 발간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에 따르면 당시 소장품은 총 1만 2230점에 달했다. 수집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건립이 추진됐기에 이왕가박물관은 발의 초기부터 유물 구입에 열을 올렸고, 4년 만에 1만 2000여 점의 소장품을 마련됐다.



국보로 지정된 하사창동 출토 철조여래좌상. 1911년 일본인이 850엔에 이왕가박물관에 팔았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하남불교사암연합회의 지난해 연등회 제등행렬. 하사창동 철불을 재현해 대중에게 알렸다.

그런 이유로 이왕가박물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왕가박물관의 설립은 왕가를 앞세운 일제 통감부 · 총독부의 문화정책의 전개였으며 실질적으로도 식민지 박물관의 성격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목수현)"고 비판하고 있다.

일제 문화정책 정책의 산물인 이왕가박물관의 수집품이 된 하사창동 철불은 현재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리하고 있다.

환수 여론 재기… 신중론도

하사창동 철불을 제자리로 모셔야 한다는 환수 의견들이 제기된 것은 2020년 즈음이다. 하남문화재단과 하남역사박물관은 2020년 9월 '하남의 불교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하남역사박물관에 재현품을 조성 · 전시했다. 당시 김상호 하남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남 교산신도시 역사문화지구에 박물관이 제대로 건립되면 하사창동 철불을 다시 모셔오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남불교사암연합회도 지자체의 움직임에 호응했다. 하남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해 연등회에서 철불을 재현한 불상을 차량에 싣고 제등행렬을 펼쳤다. 당시 사암연합회 회장이었던 동효스님은 "하남지역에서 이처럼 위풍당당한 철불이 있었음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앞으로 철불을 알릴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사창동 철불 환지본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천왕사지에 대한 발굴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역(寺域)을 알 수 없고, 사지의 복원 · 정비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남시가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이 있지만, 같은 박물관으로의 이관은 진정한 '환지본처'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숙희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의 출현과 의미'에서 "문헌상의 광주 천왕사가 지금의 하남 천왕사 절터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이나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상이 10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되는 점, 철불의 대좌로 추정되는 석조대좌가 천왕사지가 아닌 하사창동 절터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하남 천왕사 절터와 그 주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 천왕사의 창건시기와 규모, 후원세력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천왕사지 철불의 원래 모습과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하남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성불사 주지 선광 스님은 "올바른 환지본처는 원소장처인 사찰로 돌아가는 것이다. 봉안처인 천왕사지에 대한 복원 · 정비가 없는 상황에서 환수 운동은 조금 조심스럽다"면서 "우선적으로 천왕사지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